

Vigilance: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January 25, 2024

Aloha MPC ‘Ohana,

The street that Nan and I live on in Wahiawa is lined by beautiful royal palm trees. The trees have been there a very long time, because in a bygone era the street was actually a plantation road, which led up to the home of James Dole (the house is still there, not too far from our home).

Students at Leilehua High School frequently pose for graduation photos on the street, because the towering royal palms make for a pretty background.

Recently, though, the trees have run into some trouble. Because Coconut Rhinoceros Beetles have been found in some of them. Due to their history, arborists have been hard at work trying to save the trees. But every time Nan or I see one dropping more palm fronds than usual or starting to look a little stressed, we worry that the beetles may be winning. Time will tell.

Meanwhile, together with all of our neighbors, Nan and I are trying to be vigilant – to be on the lookout for any telltale signs of Rhinoceros Beetle activity or for any of the bugs themselves. So far, we haven’t seen any, but we’re keeping our eyes peeled.

In the Bible, vigilance is a virtue. “Watch and pray,” Jesus said in Luke 21:36, while 1 Peter 5:8 tells us, “Be sober and alert. Your enem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Verses such as those are talking about practicing spiritual vigilance. Because the sobering truth is that our hearts can be invaded too. Not by Rhinoceros Beetles, but by invisible forces which can “devour” our souls, like the heart of a palm tree, from the inside out.

For example, 1 Peter 2:1 says, “Rid yourselves therefore of all malice and all deceit, hypocrisy, envy, and slander of every kind.”

Like Rhinoceros Beetles, which are hard to see until it’s often too late, things like malice, deceit, envy, hypocrisy, and a lot of other sinful habits too, frankly, can sneak inside of our hearts before we know it. And once they’ve taken up residence there, getting rid of them can be a pretty tall order.

Which is why the Bible counsels us to be vigilant – to watch our hearts closely – so that we can be sure that the kinds of things that are living in us won’t end up being the spiritual equivalent of a Rhinoceros Beetle. But that they will, rather, truly fill us with grace and life.

Me ke aloha,
Pastor Ron

각성: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Nan과 내가 Wahiawa에 살고 있는 거리에는 아름다운 왕실 야자수가 늘어서 있습니다. 나무들은 아주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과거 시대에는 그 거리가 실제로 농장 도로였기 때문에 제임스 돌(James Dole)의 집까지 이어졌습니다(그 집은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Leilehua 고등학교 학생들은 우뚝 솟은 왕 야자나무가 아름다운 배경을 만들기 때문에 길 거리에서 졸업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코코넛 코벨소 딱정벌레가 그들 중 일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인해 수목 재배자들은 나무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Nan이나 나는 한 마리가 평소보다 더 많은 야자나무 잎을 떨어뜨리거나 약간 스트레스를 받은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딱정벌레가 이기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시간이 말해 줄 것이다.

그러는 동안 Nan과 저는 모든 이웃과 함께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코벨소 딱정벌레 활동의 숨길 수 없는 징후나 버그 자체를 감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눈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경계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한 구절들은 영적인 경계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진실은 우리의 마음도 침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벨소 딱정벌레가 아니라, 야자나무의 심장처럼 우리의 영혼을 안에서 밖으로 “삼켜버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꾀술과 위선과 시기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보기 힘든 장수풍뎅이처럼, 악의, 사기, 질투, 위선, 그리고 많은 다른 죄악된 습관들 역시 솔직히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 마음속으로 몰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단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게 되면 그들을 제거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마음을 면밀히 관찰하여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것들이 결국 코뿔소 딱정벌레와 영적으로 동등한 것이 되지 않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경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나 알로하,

론 목사